



Original Article / 원저

『東醫臨床方劑學』의 편집체제와 특징

신 순 식*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및 한방당뇨비만연구소

The Editing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Clinical Formula Science of Korean Medicine』

Soon Shik Shin*

Department of Formula Science, College of Korean Medicine & Research
Center of Korean Medicine for Diabetes and Obesity, Dong-Eu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Examined the editing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Clinical Formula Science of Korean Medicine』 to establish a basis for compilation system of the common formula science textbook for colleges of Korean medicine nationwide.

Methods : Comprehended the 『Clinical Formula Science of Korean Medicine』 published by professor Hyeongok(1911-1987) in 1985 and analyzed its configuration system.

Results : 『Clinical Formula Science of Korean Medicine』 has made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formula systematically by establishing and classifying 24 kinds of treatment method [the three treatment methods of cold-dampness, dryness-heat and interior deficiency and its subdivision, 19 kinds of treatment method (stomach, phlegm, eum, yang, spirit, essence, ki, blood, blood stasis, exterior, interior, half-exterior half-interior, water, wind, cold, heat, dampness) combined with reducing and vomiting] and main formula. These can be considered as professor Hyeongok's own method of classification, which is distinctive from the existing formula science system. Also, it suggests that a Korean medicine doctor should not use a biased formula science that is limited to some schools but apply the formula widely and synthetically because it is believed to pursue perfection in cure if the main formulas related to a physical disorder, pregnancy and childbirth, invigorating and purging five viscera, and Four-Constitution Medicine are added.

© 2013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This is an open access journal which permits unrestricted access via the internet (URL, <http://www.ompak.okdanche.com>.)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reproduction and providing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nclusions : 『Clinical Formula Science of Korean Medicine』 is seen as a formula science book which is to be consulted when compiling a common formula science textbook for colleges of Korean medicine by forming a Korean formula science system that is distinctive from that of China.

Keyword : 『Clinical Formula Science of Korean Medicine』, Common formula science textbook, Professor Hyeongok, Editing system

I. 서 론

『東醫臨床方劑學』¹⁾은 玄谷 尹吉榮 선생 (1911. 07.09-1987.08.24)이 1985년에 지은 方劑學書로 1冊 상권 457쪽, 하권 263쪽의 총 721쪽으로 된 책이다. 이 책은 1964년에 발간한 『東醫方劑學』²⁾(1冊 1부 229쪽, 2부 119쪽 총348쪽)을 수정보완하여 21년만에 발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한의과대학 11개, 한의학 전문대학원 1개로 한의학 전문교육 기관이 12개나 된다. 방제학은 한의학의 기초와 임상을 잇는 중요한 분야이다. 전국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제학 교재는 대략 5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자의 학문관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교육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나 표준화된 교육의 부족으로 자칫 학문의 정통성을 위협받기도 한다. 게다가 향후 한의사국가고시에 방제학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준비가 요구된다. 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이 필요한 이유이다.

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에 앞서서 동의대학교에서 이미 방제학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東醫臨床方劑學』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앞으로 표준화된 공동교재 편찬을 구축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東醫臨床方劑學』의 구성체계를 살펴보고 어떤 편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교신저자 : 신순식,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Tel : 051-850-7414

·E-mail : ssshin@deu.ac.kr

·접수 2013/06/03 ·수정 2013/06/10 ·채택 2013/06/11

II. 연구방법

『東醫臨床方劑學』¹⁾(尹吉榮 著. 서울: 明寶出版社, 1985년. 총721쪽)에 수록된 상권과 하권의 내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III. 결 과

1. 『東醫臨床方劑學』의 상권과 하권의 체계

상권은 辨證要綱, 治法과 治方의 活用要領, 實際臨床을 爲한 方劑解說, 醫案要訣, 常備藥處方, 經驗方, 癌腫의 東醫學的治療로 되어 있다¹⁾. 하권은 第1部 治療要方과 第2部 本草部の 두 부로 되어 있고, 第1部 治療要方에는 六氣別 治療要方, 外形別 治療要方, 症候別 治療要方, 婦人科 治療要方, 小兒科 治療要方, 病名別 治療要方이 있으며, 第2部 本草部에는 要藥解說, 藥味 配合法, 症候別 本草, 氣味別 本草로 되어 있다¹⁾ (Table 1).

Table 1. Volume 1 and 2 of *Clinical Formula Science of Korean Medicine*

卷	목차 내용	
上卷	辨證要綱 治法과 治方의 活用要領 實際臨床을 爲한 方劑解說 醫案要訣 常備藥處方 經驗方 癌腫의 東醫學的治療	
	第1部 治療要方 六氣別 治療要方 外形別 治療要方 症候別 治療要方 婦人科 治療要方 小兒科 治療要方 病名別 治療要方	第2部 本草部 要藥解說 藥味 配合法 症候別 本草 氣味別 本草
下卷		

2. 上卷의 辨證要綱

현곡선생은 “辨證은 陰陽·表裏·神精氣血·五臟·六氣의 어느 體系의 寒熱虛實인가를 辨斷하는 것으로, 이것을 辨證要綱이라고 한다.”¹⁾라고 정의를 내린 뒤에 ‘陰陽’·‘表裏’·‘神精氣血’·‘五臟’·‘六氣’와 ‘寒熱虛實’의 개념을 분명하게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3. 上卷의 治法과 治方의 活用要領

현곡선생은 「諸治法」에서 “宋의 『和劑局方』에 五積散이 蒐錄되었는데 本寒(抑制證 內包)證의 通治方으로 加減活用되고 있으며, 金의 劉河間은 防風通聖散을 作하여 本熱(實證 內包)證의 通治方으로 加減活用하였고, 明의 張景岳은 理陰煎을 作하여 本虛證의 通治方으로 加減活用하였으니 이 三方劑는 汎證辨治의 大綱이 되는 三大治方으로 『內經』虛實論에 立脚한 方劑다. 그러므로 『傷寒雜病論』의 方劑나 『脾胃論』·『溫病論』·四象醫學 등의 方劑가 이 三大方劑의 加減變化의 方劑로 說明된다. 그러므로 東垣은 內傷을 原因으로 하는 病의 治法과 治方을 補完하였고, 吳瑭은 溫熱이 原因이 되는 病의 治法과 治方을 補完하였으며, 李濟馬는 素因의 體質(先天體質)에 따른 看別法과 治法·治方을 補完하였고, 湯本求真은 古方(『傷寒論』方 및 『金匱要略』方) 應用目標證을 補完하였으니 이들은 相互 相反되는 것이 아니라 『傷寒論』을 補完하여 治療에 萬全을 期하게 한 것이다. 또 『和劑局方』의 五積散, 『傷寒三六書』의 防風通聖散 및 『景岳全書』의 理陰煎은 『內經』虛實論에 立脚한 三大治方으로 이를 細分하면 胃·痰·陰·陽·神·精·氣·血·瘀·血·表·裏·半·表·裏·水·風·寒·熱·濕·燥·暑 등의 治方이 되니 여기에 消와 吐의 方을 더하면 二十一種類의 治方으로 分類되어 汗·吐·下·和·溫·清·消·補의 醫門八法이 具備하므로 『傷寒雜病論』·『脾胃論』·『溫病論』·四象論 등의 諸方劑가 이들 方劑의 加減 또는 變化方內에 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도 相互 通하는 것이지 別途의 것이 아니다.”¹⁾라고 하여 『黃帝內經』의 治法에서부터 清代 程鍾齡의 醫門八法, 李濟馬의 四象體質 治法과 일본 古方派

의 治法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현곡선생의 독자적인 방제학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현곡선생은 구체적으로 傷寒治法과 溫病治法, 風寒과 溫熱의 特點, 溫病의 分類, 風寒과 溫熱의 初起發熱型, 初起發熱部位와 病證의 特點을 밝히고, 實際的 臨床例로서 風寒·溫熱·內傷의 初起證例와 四象醫學의 治療를 제시하였다.

4. 上卷의 實際臨床을 爲한 方劑解說

현곡선생은 “치법에 있어서는 寒濕·燥熱·內虛의 三大治法과 이 三大治法을 더 세분한 胃·痰·陰·陽·神·精·氣·血·瘀·血·表·裏·半·表·裏·水·風·寒·熱·濕·燥·暑 등 證의 治법 및 消法과 吐法이 있어 24가지 治法과 主方이 있다. 이들 치법에는 汗·吐·下·和·溫·清·補·消의 醫門八法이 모두 이 속에 있으며 汎證 분류도 이에 따른다. 主方 이외에 혹은 加減한 것, 혹은 合方하고 加減한 것, 혹은 變方으로 된 것 등으로 그 변화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나 잘 추측해 보면 그 妙한 理致를 알 수 있다. 이밖에 違和의 主方, 妊娠의 主方, 五臟補瀉方, 四象體質의 主方을 더하면 治療에 萬全을 期할 수 있다.”¹⁾라고하여 24가지의 治法과 主方을 분류하고 한의사라면 어느 학파에 국한하여 편중된 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폭넓게 방제를 응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현곡선생은 24종의 治法과 主方 설정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本熱·本寒·本虛의 三大治法을 胃·痰·陰·陽·神·精·氣·血·瘀·血·表·裏·半·表·裏·水·風·寒·熱·濕·燥·暑와 消·吐 等 21종의 治法으로 나누고 나눈 各證의 主方을 설정한다. 단순히 胃腸不和에는 本寒의 通治方인 五積散 중에서 平胃散 (理氣祛濕劑)을 분리하여 胃腸不和의 主方으로 하고, 단순히 痰飲이면 五積散 중에서 二陳湯 (化痰劑)을 분리하여 痰飲의 主方으로 하고, 단순히 表證으로 傷寒이면 五積散 중에서 麻黃湯 (發汗劑)을 분리하여 傷寒의 主方으로 하며, 단순히 傷風이면 五積散 중에서 桂枝湯 (解肌劑)을 분리하여 傷風의 主方으로 하고, 麻黃湯과 桂枝湯을 쓸 정도가 아니면 그 뜻을 취한 香蘇散 (理氣祛風寒劑)을 主方으로 하고,

단순히 半表裏證이면 五積散의 和法の 뜻을 취하여 小柴胡湯(和解劑)을 主方으로 하고, 또 단순한 暑證이면 五積散의 治暑의 뜻을 취하여 香薷散(治暑劑)을 主方으로 한다. 또 단순히 小便不利면 防風通聖散에서 六一散을 분리하여 小便不利의 主方으로 할 것이나 그 운용을 넓히기 위하여 六一散의 變方인 五苓散(利水劑)을 主方으로 한다. 六一散은 濕熱로 小便不利한데 쓰는 것이나, 이 방제에서 滑石을 茯苓으로 바꾸고 桂枝·生薑의 辛溫味를 넣으면 寒으로 小便不利한 것을 치료하는 茯苓甘草湯이 된다. 이 방제는 溫性이 약간 강하므로 溫性의 生薑과 緩和性의 甘草를 빼고 利水の 藥力이 강한 猪苓·澤瀉와 健胃除濕하는 白朮을 넣으면 五苓散이 된다. 그러므로 六一散의 藥味는 없어도 六一散의 變方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濕證이면 平胃散과 五苓散의 合方인 胃苓湯(祛水濕劑)을 主方으로 하고, 단순히 風證이면 防風通聖散에서 분리한 防風·荊芥·薄荷·甘草에 藥味를 더 넣은 川芎茶調散(祛風劑)을 主方으로 한다. 五苓散·胃苓湯·川芎茶調散은 防風通聖散에서 취하였으나 變方으로 辛溫性으로 변화였다. 또 단순히 熱證이면 防風通聖散에서 白虎湯(石膏·黃芩·甘草는 白虎湯(清熱劑)의 뜻이 있다.)을 분리하여 清熱의 主方으로 하고, 단순히 燥熱로 변비이면 防風通聖散에서 調胃承氣湯을 분리하여 主方으로 할 것이

나 그 운용을 넓히기 위하여 調胃承氣湯의 加減方인 大承氣湯(瀉下劑)을 大便熱閉의 主方으로 한다. 또 단순히 血虛이면 本虛의 主方인 理陰煎 중에서 貞元飲을 분리하여 主方으로 할 것이나 그 운용을 넓히기 위하여 貞元飲에서 甘草를 빼고 芍藥·川芎을 넣은 四物湯(理血劑)을 主方으로 하고, 단순히 瘀血이면 역시 四物湯을 主方으로 하고, 단순히 虛寒이면 理陰煎에서 甘草乾薑湯을 분리하여 主方으로 할 것이나 이도 그 운용을 넓히기 위하여 甘草乾薑湯의 加減方인 理中湯(溫裏劑)을 主方으로 하고, 단순히 氣虛하면 理中湯의 加減方인 四君子湯(補氣劑)을 主方으로 하고, 단순히 陰虛하면 貞元飲의 變方인 六味地黃湯(補陰劑)을 主方으로 한다. 貞元飲의 加減方인 左歸飲은 熟地黃·炙甘草·山藥·枸杞子·茯苓·山茱萸로 되어 있다. 이는 貞元飲에서 當歸를 빼고 加減한 방제인데, 여기에 枸杞子·甘草를 빼고 牡丹皮·澤瀉를 넣으면 六味地黃湯이 된다. 단순히 陽虛하면 六味地黃湯의 加味方인 八味地黃湯(補陽劑)을 主方으로 하고, 단순히 精不足하면 역시 六味地黃湯을 主方으로 하고, 단순히 神氣가 부족하면 四君子湯의 加減變方인 茯神湯(安神劑)을 主方으로 한다. 『千金方』의 定志小丸에 茯神을 넣은 것으로 『千金方』에서는 茯神丸散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燥하면(燥는 血少諸澀·枯澀·津少·乾勁·皴揭 등과 痿症·痺症을 발병한다.)

Table 2. Main Formula of Syndrome Different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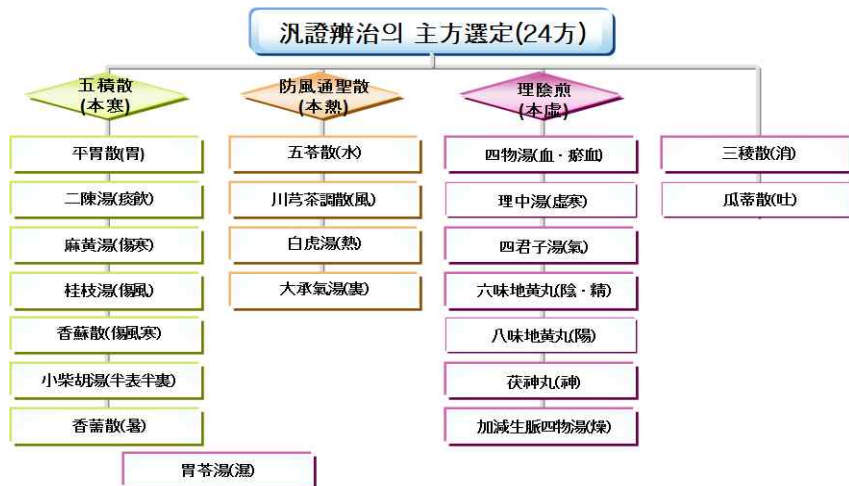


Table 3. Syndrome and Therapeutic Method of General Formula

病證	治法	通治方
本寒(寒濕)	辛溫劑	五積散
本熱(燥熱)	辛涼劑	防風通聖散
本虛(內虛)	甘溫劑(溫補滋養劑)	理陰煎

加減生脈四物湯(潤燥劑)을 主方으로 하고, 消法은 三稜散(消積劑)을 主方으로 하고, 吐法은 瓜蒂散(吐劑)을 主方으로 한다. 이와같이 21종의 主方を 설정하고 이 主方的 加減合方加減 또는 變方으로 모든 病症을 치료한다 (Table 2).¹⁾

위와 같은 현곡선생이 제시한 24종의 治法과 主方を 설정하고 분류하는 방식은 기존의 방제학 체계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현곡선생만의 분류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곡선생은 「通治方解說」에서 方劑의 活用範圍에 따라 通治方·通用方·各病症方으로 분류하고 “二十四種類中 本寒·本熱·本虛의 三種方은 通治方이고 (Table 3), 通用方은 通治方을 除外한 二十一種證類의 主方으로 廣範한 通用方이며 狹小한 通用方은 例를 들면 痢疾通用方·咳嗽通用方 같은 것으로 各病의 通用方이고 各病症方은 某病·某症에 某方이라는 一病一方이다.”¹⁾라고 하였다.

현곡선생은 通治方을 出典, 方藥, 方解, 적응증, 加減法의 순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方藥은 조성약물을, 方解는 基本方, 藥味配合과 현대적인 해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곡선생은 「汎證主方(廣範한 通用方) 및 關聯方의 解說」¹⁾에서 平胃散·二陳湯·麻黃湯·桂枝湯·香蘇散·小柴胡湯·香蘇散·五苓散·胃苓湯·川芎茶調散·白虎湯·大承氣湯·四物湯·理中湯·四君子湯·六味地黃丸·八味地黃丸·茯神丸·加減生脈四物湯·三稜散·瓜蒂散의 21종의 汎證主方과 이와 관련된 關聯方을 제시하였다 (Table 4).

5. 上卷의 醫案要訣

醫案要訣은 총론과 각론으로 되어 있다. 현곡선생은 총론에서 “疾病을 大別하면 生理的 條件

Table 4. Main Formula and Related Formula

汎證主方 및 關聯方	方數	汎證主方 및 關聯方	方數
平胃散 및 關聯方	56	大承氣湯 및 關聯方	33
二陳湯 및 關聯方	59	四物湯 및 關聯方	60
麻黃湯 및 關聯方	37	理中湯 및 關聯方	31
桂枝湯 및 關聯方	26	四君子湯 및 關聯方	53
香蘇散 및 關聯方	23	六味地黃丸 및 關聯方	20
小柴胡湯 및 關聯方	36	八味地黃丸 및 關聯方	8
香蘇散 및 關聯方	11	茯神丸 및 關聯方	19
五苓散 및 關聯方	50	加減生脈四物湯 및 關聯方	12
胃苓湯 및 關聯方	19	三稜散 및 關聯方	10
川芎茶調散 및 關聯方	50	瓜蒂散 및 關聯方	5
白虎湯 및 關聯方	42		
합계 (660方)	409		251

에서 오는 老人性疾病 婦人性疾病 小兒性疾病 및 一般疾病으로 四大分 된다. 一般疾病은 外感病 內感病 外傷病 內傷病 腫瘡病 蟲病 中毒病 咬傷이다.”라고 하였고 “病의 原因은 日常生活活動의 失攝이니 이를 分하여 말하면 動作輕妄 飲食失節 勞役過度 房勞不節 精神過勞 六氣所犯 (여기에는 微生物感染이 包含된다.) 및 外傷이다.”¹⁾라고 하였으며, “病의 發生部位는 ……., 骨髓 腦髓 精髓는 髓로 統合되어 腎에 歸屬되고, 營衛는 氣血의 類이며, 經絡은 五臟六腑에 歸着되고, 六腑는 五臟에 統合되며, 其他 各部位도 經絡을 따라 五臟에 歸屬되니 결국은 陰 陽 表 半表半裏 裏 五臟 神 精 氣 血로 統合된다. 또 外邪는 六氣이며 內生毒은 瘀血 痰 濕 水이고, 모든 病症은 寒熱虛實로 歸着되니 陰 陽 表 半表半裏 裏 肝 心 脾 肺 腎 風 寒 熱 (暑와 火를 포함한다.) 濕 燥 瘀血 痰 水의 寒熱虛實의 體系로 集約 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곡선생은 “이에 따라 基本方劑를 構想하므로 醫案作成의 기틀을 삼을 수 있다. 이 基本方劑는 方劑作成의 基礎가 되는 中心處方으로 既成方 中에서 選擇하거나 또는 既成方 中에서 基本이 되는 部分을 拔取하거나 마땅치 않은 것은 新作하였다. 이 基本方劑를 運用活用하는대는 그대로 使用할 境遇도 있으나 대개는 二, 三, 四方劑를 合方하고 藥味를 加減하며 分數를 增減하여 病證에 適合한 方劑로 作成한다.”¹⁾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현곡선생은 기본방 66方を 제시하고 있다: 整理 正理湯·妊婦 俱安湯·產婦 生化湯·補陰補精 六味地

黃湯·補陽 八味地黃湯·補神 補神湯·補氣 四君子湯·理氣 理氣湯·補血 四物湯·理血 理血湯·利水 五苓散·補肝 補肝湯·補心 補心湯·補脾 補脾湯·補肺 補肺湯·補腎 補腎湯·瀉肝 瀉肝湯·瀉心 瀉心湯·瀉脾 瀉脾湯·瀉肺 瀉肺湯·瀉腎 平腎湯·和解 小柴胡湯·消食 消食湯·風寒 荊蘇湯·咳嗽 鎮咳湯·時疫 秦芫湯·升散 升葛湯·化痰 二陳湯·化痰 桃仁湯·寒極 四逆湯·裏寒 理中湯·肌熱 白虎湯·熱盛 連解湯·消炎 消炎湯·骨蒸 解蒸湯·清暑 香薷湯·黃疸 茵陳湯·寒下 承氣湯·溫下 備急丸·潤便 芡肉湯·寒泄 眞武湯·痢疾 連芍湯·升提 升提湯·血實 手拈湯·經候 調經湯·奕堅 奕堅湯·積聚 破癥湯·消疳 消疳湯·消毒 消毒湯·舒經 舒經湯·鎮痛 鎮痛湯·吃逆 丁柿湯·聲嘶 菖蒲湯·諸風 清風湯·諸蟲 化蟲湯·化膿 化膿湯·咽喉 甘桔湯·建中 建中湯·止汗 玉屏風湯·生津 生脈湯·上血 犀地湯·下血 地榆湯·滲瀉 括承湯·排氣 排氣湯·臟躁 甘麥大棗湯·固精 固精湯

6. 上卷의 常備藥處方

현곡선생은 임상에서 개원할 때 언제나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方劑를 精選한 것으로 20方¹⁾이다: 通關 通關散·通氣 麝香蘇合香元·中風 牛黃清心元·解毒 紫金錠·固冷 黑錫丹·急驚 保命散·慢驚 求命散·肝氣 乳香散·吐乳 燒針丸·熱毒 紫雪·消食 消滯丸·瘧疾 截瘧散·便秘 參疏丸·咽喉 卽效散·眼疾 點眼散·疔瘡 棗雄散·丹毒 拔毒散·菜毒 妙應丸·強心 強心散·殺菌 輕粉丸

7. 上卷의 經驗方

경험방은 모두 295方を 소개하고 있다. 현곡선생 자신의 경험방 뿐만이 아니고 1980년대 이전 당시 명의들의 경험방과 또한 일부 古醫方書의 方劑도 수재하여¹⁾ 임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玄谷方, 媚藥考方, 醫辭方, 聖濟方, 癰疽方, 十法方, 醫林改錯方, 扁鵲心書方, 和劑局方, 市中方, 金弘起方, 李承翼方, 沈氏尊生書方, 朴鎬豐方, 李乙雨方, 張攸相號南溪方, 市中賣藥方, 徐燦浩 所傳方, 俗方, 本事方, 朴麟緒方, 이행원 方, 河相洙方, 申佶求方, 中國方, 醫學見能力, 蔡仁植方, 盧重輝方, 金永勳方, 劉河間方, 金長

憲方, 韓斗山方, 中共方, 洪淳昇方, 外國方, 中國秘方, 千金方, 李世洛方, 濟衆方, 東醫寶鑑方, 中國現行方, 辭典方, 眞本醫方, 證治準繩方, 夏姬杏仁煎方, 朴淳達 所傳方, 金定濟方, 尹龜普家傳秘方, 濟民方, 瘍醫大全文

8. 上卷의 癌腫의 東醫學의 治療

현곡선생은 “東醫學에서는 證治를 爲主로 하므로 癌腫에 關한 記錄에 乳巖이 收錄되었을 뿐이고 대개는 證에 따라 積聚·痰癖·癥瘕·噎膈·反胃·嘔吐·翻胃·血證·翻花瘡·鼻痔·癰疽等에 散見된다. 그 중 積聚·痰癖·癥瘕·噎膈·反胃가 主要證이 되므로 이에 使用되는 藥物을 『本草綱目』에서 拔萃하여 癌腫研究에 參考로 資키로 한다.”¹⁾고 하였고, 食物部·補益部·利氣部·溫胃消食部·溫裏部·清涼部·化痰順氣部·奕堅部·化癆利血部·攻邪部로 나누어 관련 藥물을 정리하고 있다 (Table 5). 그 외에 『中草藥學書』의 32종, 『中藥大辭典』의 63종, 『700治癌中藥及其處方』의 141종과 『治癌中草藥』의 64종의 治癌藥物을 소개하고 있다¹⁾. 이상의 治癌藥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藥물중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80종을 별도로 추려 실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곡선생은 治癌藥物 이외에 治癌方劑도 소개하였다. 먼저 古書 특히 『鄉藥集成方』에 수재된 방제 8方を 소개하였고, 당시에 명의들이 응용한 申佶求所傳方과 趙麒出方을 수록하였다. 중국의 內科書와 婦人科書에 수재된 방제 16方과 일본 大塚敬節의 治癌方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현곡선생 자신의 암치료에 대한 견해와 治癌 경험방을 소개하고 있는데, 25년이 지난 오늘날에

Table 5. Materia Medica about Treating Cancer in Comprehensive Outline of the Materia Medica

분류	藥物數	분류	藥物數
食物部	64	化痰順氣部	11
補益部	17	奕堅部	21
利氣部	15	化癆利血部	14
溫胃消食部	19	攻	金石類 55
溫裏部	6	邪	動物類 75
清涼部	17	部	植物類 177
합계(491)	138		353

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곡선생은 “中共方劑는 좀 過重한 것 같으며 우리에게 生疎한 藥物이 많으므로 臨床에서 取用하게 容易치 않으며, 日本方劑는 過輕하므로 또한 臨床에서 取用하기 어렵다. 四象體質論에 依據해 보면 中共方劑는 健壯한 太陰人體質로 緩慢性體質에 發生한 治癌劑로 變通使用할 수 있고, 日本方劑는 脆弱한 少陰人體質에 發生한 治癌劑로 變通使用할 수 있을 것이다.”¹⁾라고 하여 중국과 일본의 治癌方劑를 검토하고 분석한 뒤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곡선생은 “東醫學의 本治는 證을 보아 그 證의 原因에 따라 方劑를 作成하는 것이니 癌腫治療도 이에 依據하게 된다. 그러므로 方劑作成의 대체를 말하면 女人이 鬱氣로 因한 것이면 逍遙散의 加減變方으로 治療하고, 男子肝鬱에 因해 發病한 것이면 四逆散의 加減變方으로 治療한다고 할 수 있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境遇에 따라서는 男子도 逍遙散을 주로 할 때가 있고, 女子도 四逆散을 주로 할 때가 있다. 中共方에 子宮癌肝鬱氣滯型의 方劑는 逍遙散을 주로 加減變通한 方이다. 陰虛에는 六味地黃湯을 주로 加減變通하는 것이니 中共方에 子宮頸癌의 肝腎陰虛型의 方劑는 六味地黃湯의 變通方이다. 陽虛이면 附子理中湯·八味地黃湯에 加減變通하고, 氣虛면 四君子湯 또는 補中益氣湯에 加減變通하고, 血虛면 四物湯에 加減變通하고, 氣血兩虛이면 八物湯에 加減變通하고, 氣血極衰하면 十全大補湯에 加減變通한다. 또 五臟癌이면 五臟補瀉方에 加減變通할 수도 있다. 그러나 癌腫은 脾氣 卽統合機能이 不足하여 統制에서 離脫되므로 發生하는 것이니 癌의 補助藥으로 人蔘을 兼用하여야 한다.”¹⁾라고 하여 治癌方劑 작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治癌方劑 작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곡선생 자신의 실제 암치료 임상례 5方을 소개하고 있어 한의학적인 암치료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下卷의 第1部 治療要方

下卷의 第1部 治療要方에는 六氣別 治療要方,

外形別 治療要方, 症候別 治療要方, 婦人科 治療要方, 小兒科 治療要方과 病名別 治療要方으로 되어 있다¹⁾. 이중에 六氣別, 外形別, 症候別과 婦人科의 治療要方은 『方藥合編』³⁾을 위주로 수록하고 기타 중요한 방식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小兒科 治療要方은 『保幼新編』 1冊⁴⁾을 위주로 수록하였다.

六氣別 治療要方은 9部 273方이 (Table 6), 外形別 治療要方은 21部 295方이 (Table 7), 症候別 治療要方은 24部 582方이 (Table 8), 婦人科 治療要方은 5部 250方이 (Table 9), 小兒科 治療要方은 8部 263方이 (Table 10), 그리고 病名別 治療要方은 11科 1533方이 (Table 11) 수

Table 6. Essential Formula about Treating Six Excesses

六氣	方數	六氣	方數
風部	72	暑部	31
感冒部	37	濕部	30
寒部	5	燥部	12
溫熱·瘟疫部	52	火熱部	34
합계(273)	166		107

Table 7. Essential Formula about Treating External Body

外形	方數	外形	方數
頭部	28	腹部附臍	17
面部	18	腰部	12
眼部	10	脇部	10
耳部	4	皮部	16
鼻部	12	手部	4
口舌部	12	足部	22
牙齒部	9	前陰部	22
咽喉部	15	後陰部	14
頸項部及背部	5	癰疽部	18
胸部	29	諸瘡部	18
乳部	見婦人科		
합계(295)	142		153

Table 8. Essential Formula about Treating Symptoms

症候	方數	症候	方數
益壽	2	咳嗽	61
精	13	積聚	14
氣	25	浮腫	12
神	16	眼滿	7
血	41	消渴	13
夢	3	黃疸	10
聲音	11	瘧疾	51
邪祟	3	津液	9
內傷	39	痰飲	30
虛勞	33	蟲	9
霍亂	8	小便	56
嘔吐	8	大便	108
합계(582)	202		380

Table 9. Essential Formula Used for Obstetrics and Gynecology

婦人	方數	婦人	方數
調經部	41	乳部	8
妊娠部	62	附妊娠禁忌	85
産後部	54		
합계(250)	157		93

Table 10. Essential Formula Used for Pediatrics

小兒		方數	小兒		方數
總 論	小兒病源	0	各 論	初生門	13
	五臟主病과 虛實診斷	0		生育門	171
	實熱과 虛熱辨	0		痘疹門	36
				癩疹門	20
			附錄 癩疹新書	23	
합계(263)		0			263

Table 11. Essential Formula for Each Diseases

病名		方數	病名		方數
內 科	傳染病	149	眼科		98
	呼吸器病	113	耳鼻咽喉科		110
	循環器病	57	産科		79
	消化器病	196	婦人科		80
	泌尿器病	58	皮膚科		85
	新陳代謝病	101	泌尿生殖器科		13
	關節 및 神經系統	140	性病科		51
小兒科	75	齒科		18	
外科	110				
합계(1,533)		999			534

록되어 있어 분야별로 쉽게 方劑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10. 下卷의 第2部 本草部

下卷의 第2部 本草部에는 要藥解說, 藥味 配合法, 症候別 本草와 氣味別 本草로 되어 있다¹⁾. 要藥解說에서는 現행 方劑에서 사용하고 있는 320종을 精選하고 藥물 하나하나의 특성을 이해 하도록 하여 方劑작성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Table 12-13), 藥味 配合法에서는 藥물배합의 1258예를 제시하여 方劑작성 및 加減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Table 14-15), 症候別 本草에서는 藥물 350종을 精選하여 症候에 따르는 藥물의 5472예를 찾을 수 있어 方劑작성에 참고

가 되게 하였고 (Table 16-19), 氣味別 本草에서 사용하는 藥물 474종을 精選하여 五味別로 분류하고 藥性を 기록하였다 (Table 20).

Table 12. Summary of Essential Materia Medica 1

分類	藥數	分類	藥數
補益藥類	29	止血藥類	12
補益藥副助藥類	9	通經祛瘀血藥類	17
壯陽藥類	14	破積聚藥類	27
溫熱藥類	6	止痛藥類	26
寒冷藥類	11	發汗藥類	5
養神藥類	17	止汗藥類	7
理氣藥類	13	涌吐藥類	7
破氣藥類	4	止嘔藥類	4
開關通氣藥類	6	瀉下藥類	7
溫胃下食藥類	8	緩下藥類	7
消食藥類	9	止瀉藥類	15
通行血脈藥類	9	滲濕利尿藥類	12
十二經振興藥類	3	逐水藥類	9
합계(293)	138		155

Table 13. Summary of Essential Materia Medica 2

分類	藥數	分類	藥數
止渴藥類	19	排膿藥類	8
祛痰藥類	18	續絕傷藥類	5
鎮咳藥類	19	消痞腫癰疽藥類	19
鎮驚鎮痙藥類	20	殺蟲藥類	30
通塞藥類	16	特殊藥效藥類	32
解熱藥類	23	血中氣藥類	3
發散風寒藥類	18	氣中血藥類	2
散風濕風痺藥類	16	引經藥類	51
清熱清火涼血藥類	25	解毒藥類	24
清上藥類	3	法製藥類	10
清涼藥類	4	服藥禁忌와 藥味配合禁忌	0
清暑藥類	6	毒性이 있는 藥類	42
清熱解毒藥類	8	『內經』式氣味別用藥分類	53
합계(474)	195		279

Table 14. Methods of Combining Materia Medica 1

分類	配伍數	分類	配伍數
補精部	25	理氣部	62
補神部	13	滯氣部	34
附記	9	治血部	45
補陽部	8	食傷部	81
補陰部	16	風寒部	99
補氣部	19	暑濕部	24
補血部	19	燥火部	1
補其他	26	痰部	61
瀉部	34	咳嗽部	59
溫部	28	嘔逆·嘔吐·吃逆部	25
涼部	96	頭痛部	23
합계(807)	293		514

Table 15. Methods of Combining Materia Medica 2

分類	配伍數	分類	配伍數
腰痛部	9	乳部	2
心腹痛部	19	手足部	19
諸痛部	41	皮膚部(汗)	14
水濕部	60	積聚部	18
小便部	37	腫毒部	20
大便部	50	蟲部	3
頭部	見頭痛部	婦人部	56
眼部	3	小兒部	20
耳部	4	雜部	51
鼻部	10	諸傷中毒部	10
口咽部	5		
합계(451)	238		213

Table 16. Materia Medica for Each Symptoms 1

症候	藥數	症候	藥數
精(附遺精)	67	熱	227
氣	243	痰	113
神(附睡)	44	癩	41
鬼邪	11	膿	29
血	229	鬱結(滯)	31
風	303	內傷	35
寒	93	外傷	24
暑	7	虛勞傷	51
濕	61	蟲	102
水	71	頭(腦)	53
燥	11	毛髮	20
火	39	顔面	35
합계(1,940)	1,179		761

Table 17. Materia Medica for Each Symptoms 2

症候	藥數	症候	藥數
竅	27	心腹痛	108
耳	22	肝	53
目(眼)	126	心	51
鼻	27	脾胃	100
口舌	19	肺	83
牙齒	27	腎	51
咽喉	39	大小腸	80
背	3	膀胱	21
胸	4	腰	59
脇	4	前陰	38
乳	19	後陰	28
五臟	62	四肢	19
합계(1,070)	379		691

Table 18. Materia Medica for Each Symptoms 3

症候	藥數	症候	藥數
關節	19	推陳致新	5
肌肉	58	消渴(煩)	88
筋肉(骨節·骨髓)	97	眼滿(痞)	85
丹田	3	眩暈	22
命門	10	瘟疫	10
三焦	24	時疫	6
經絡	44	咳嗽喘	70
榮衛	6	嘔吐	85
壯陽(壯陰)	78	霍亂	45
補益(一般的인 것)	36	二便(附泄瀉痢疾)	181
津液(附汗)	78	淋濁	60
百合病	2	疝(奔豚)	37
합계(1,149)	455		694

Table 19. Materia Medica for Each Symptoms 4

症候	藥數	症候	藥數
脚氣	27	癰疽	68
痺	70	積聚	92
痿	17	癥瘕	55
驚癇(癲狂)	73	疫癘	22
痞	40	諸毒	188
黃疸	13	伏尸	5
癰疹(癩疹)	8	婦人	240
疥癬瘙癢	47	小兒	85
齒	7	雜類	9
腫	86		
瘡	142		
瘰癧	19		
합계(1,313)	549		764

Table 20. Materia Medica as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Materia Medica

氣味	藥數
甘味部	106
辛味部	75
苦味部	78
酸味部	16
鹹味部	32
複味部	
複味甘味部	55
複味辛味部	42
複味苦味部	40
複味酸味部	10
複味鹹味部	20
現在常用本草異名表	98
합계(572)	572

IV. 고찰

『東醫臨床方劑學』¹⁾은 玄谷 尹吉榮 선생 (1911.07.09. - 1987.08.24.)이 이미 1964년에 발간했던 『東醫方劑學』²⁾(1冊 1부 229쪽, 2부 119쪽 총 348쪽)을 수정보완하여 21년만인 1985년에 발간한 方劑學書로 1冊 상권 457쪽, 하권 263쪽의 총 721쪽으로 된 책이다. 현곡선생의 말년의 저작으로 현곡선생의 원대하고 심원한 의학 사상이 이 방제학서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권은 辨證要綱, 治法과 治方의 活用要領, 實際臨床을 爲한 方劑解說, 醫案要訣, 常備藥處方, 經驗方, 癌腫의 東醫學的治療로 되어 있다. 하권은 第1部 治療要方과 第2部 本草部의 두 부로 되어 있고, 第1部 治療要方에는 六氣別 治療要方, 外形別 治療要方, 症候別 治療要方, 婦人科 治療要方, 小兒科 治療要方, 病名別 治療要方이 있으며, 第2部 本草部에는 要藥解說, 藥味配合法, 症候別 本草, 氣味別 本草로 되어 있다.

방제학서를 편찬할 때 학자마다 편찬체제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총론은 김도희 등의 의견⁵⁾에 의하면 서론(개념·發展史·다학제연구·학습방법·연구범위·연구방법·학술활동), 방제와 변증논치, 방제와 치법(醫門八法·64法등), 방제의 분류, 방제의 구성과 변화(配伍·구성·변화), 제형(원류·특징), 煎湯法과 복용법, 古今度量衡의 내용이 들어간다. 각론의 분류체제도 학자마다 다르지만 각론에 있는 개별 방제는 李飛의 의견⁶⁾에 의하면 出典·命名·組成·用法·劑型·作用·適應症·病機分析·方劑分析·現代解釋·臨床應用·注意事項·源流發展·難題解說·拔萃文獻·醫案·臨床報告·藥理作用·附方과 參考文獻의 20개 항목으로 설명하는 것이 개별방제를 좀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도희 등의 방제학 총론⁵⁾에 의하면 『東醫臨床方劑學』에는 변증논치와 치법 이외에는 총론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현곡선생이 지은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의 「Ⅷ. 方劑에 關한 一般知識」⁷⁾에는 方劑組成의 規格, 方劑의 變化

性, 藥性的 七情과 引經藥, 古今藥量變遷, 劑型的 種類, 方劑의 分類, 煎藥法과 服藥法이 소개되어 있다. 이미 현곡선생 자신의 저서에 이미 방제학 총론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東醫臨床方劑學』에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후학들을 위해서는 『東醫臨床方劑學』에 총론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곡선생은 개별방제를 出典, 方藥, 方解, 적용증과 加減法의 순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方藥은 조성약물을, 方解는 基本方, 藥味配合과 현대적인 해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李飛의 의견⁶⁾에 따라 개별방제에 대한 설명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중국에서 나온 방제학서는 대부분 汪昂이 지은 『醫方集解』⁸⁾의 종합분류법을 기본으로 따르고 있다. 『醫方集解』는 治法을 주로 하고 方劑의 效能과 질병의 원인, 病情을 종합하고, 專門科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汪昂은 『醫方考』⁹⁾의 질병을 病因으로 나누고 十二門으로 분류한 것을 거울삼아 方劑를 補養·發表·涌吐·攻裏·和解·理氣·理血·祛風·祛寒·清暑·利濕·潤燥·瀉火·除痰·消導·收澀·殺蟲·明目·癰瘍·經產·急求 등 二十二種으로 나누었다. 뒤이어 吳儀洛의 『成方切用』¹⁰⁾과 오늘날 중국의 中醫藥大學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方劑學書^{11,12)}에서 이러한 分類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의 일부 몇몇 한의과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方劑學』¹³⁾의 저본인 『實用處方綱目』¹⁴⁾에서는 『醫方集解』의 분류를 근본으로 하여 解表·瀉下·和解·清熱·祛暑·溫裏·表裏雙解·補益·安神·開竅·固澀·理氣·理血·治風·治燥·祛濕·祛痰·消導·化積·驅蟲·涌吐·癰瘍 등 二十一劑로 분류하였다.

현곡선생은 “치법에 있어서는 寒濕·燥熱·內虛의 三大治法과 이 三大治法을 더 세분한 胃·痰·陰·陽·神·精·氣·血·瘀血·表·裏·半表裏·水·風·寒·熱·濕·燥·暑 등 證의 치법 및 消法과 吐法이 있어 24가지 治法과 主方이 있다. 이들 치법에는 汗·吐·下·和·溫·清·補·消의 醫門八法이 모두 이 속에 있으며 汎證분류도 이에 따른다. 主方 이외에 혹은 加減한 것, 혹은 合方하고 加減한 것, 혹은 變方으로

된 것 등으로 그 변화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나 잘 추측해 보면 그 妙한 理致를 알 수 있다. 이밖에 違和의 主方, 妊娠의 主方, 五臟補瀉方, 四象體質의 主方을 더하면 治療에 萬全을 期할 수 있다.”¹⁾라고하여 24종의 治法과 主方을 설정하고 분류하여 방제를 계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방제학 체계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현곡선생만의 분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한의사라면 어느 학파에 국한하여 편중된 방제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폭넓게 방제를 응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현곡선생은 기존의 방제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東醫臨床方劑學』의 「醫案要訣」에서 “이에 따라 基本方劑를 構想하므로 醫案作成의 기틀을 삼을 수 있다. 이 基本方劑는 方劑 作成의 基礎가 되는 中心處方으로 既成方 中에서 選擇하거나 또는 既成方 中에서 基本이 되는 部分을 拔取하거나 마땅치 않은 것은 新作하였다. 이 基本方劑를 運用活用하는 데는 그대로 使用할 境遇도 있으나 대개는 二, 三, 四方劑를 合方하고 藥味를 加減하며 分數를 增減하여 病證에 適合한 方劑로 作成한다.”¹⁾라고 하였고, 기본방 66방을 제시하여 후학들이 방제작성과 응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東醫臨床方劑學』에서는 常備方劑 20方과 현곡선생 자신과 당대 명의 경험방 295方を 소개하고 있고, 현곡선생은 治癌藥物 이외에 治癌方劑도 소개하였다. 먼저 古書 특히 『鄉藥集成方』에 수재된 방제 8方を 소개하였고, 당시에 명의들이 응용한 申佶求所傳方과 趙麒出方을 수록하였다. 중국의 內科書와 婦人科書에 수재된 방제 16方과 일본 大塚敬節의 治癌方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현곡선생 자신의 암치료에 대한 견해와 治癌 경험방을 소개하고 있는데, 2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下卷의 第1部 治療要方에는 六氣別, 外形別, 症候別, 婦人科, 小兒科와 病名別 治療要方으로 되어 있다. 이중에 六氣別, 外形別, 症候別과 婦人

科의 治療要方은 『方藥合編』³⁾을 위주로 수록하고 기타 중요한 방식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小兒科 治療要方은 『保幼新編』 1冊⁴⁾을 위주로 수록하였다. 六氣別 治療要方은 9部 273方이, 外形別 治療要方은 21部 295方이, 症候別 治療要方은 24部 582方이, 婦人科 治療要方은 5部 250方이, 小兒科 治療要方은 8部 263方이, 그리고 病名別 治療要方은 11科 1533方이 수록되어 있어 분야별로 쉽게 方劑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下卷의 第2部 本草部에는 要藥解說, 藥味 配合法, 症候別 本草와 氣味別 本草로 되어 있다. 要藥解說에서는 현행 方劑에서 사용하고 있는 320종을 精選하여 중국의 본초서¹⁵⁾와는 다른 현곡선생의 독자적인 약물분류방식을 택하고 약물 하나하나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여 方劑작성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藥味 配合法에서는 약물배합의 1258예를 제시하여 方劑작성 및 加減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행 藥對^{16,17)}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症候別 本草에서는 약물 350종을 정선하여 症候에 따르는 약물의 5472예를 찾을 수 있어 方劑작성에 참고가 되게 하였고, 氣味別 本草에서는 약물 474종을 精選하여 五味別로 분류하고 藥性を 기록하여 약물을 氣味藥性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東醫臨床方劑學』은 중국과는 구분되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방제학 체계를 세워 한의과대학의 방제학 공동교재를 편찬할 때 깊이 참고해야 할 방제학서라고 보여진다.

V. 결 론

『東醫臨床方劑學』은 현곡선생이 1985년에서 지은 방제학서로 다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곡선생은 『東醫臨床方劑學』에서 寒濕燥熱 및 內虛의 三大治法과 이 三大治法을 더 세분한 胃·痰·陰·陽·神·精·氣·血·瘀·血·表·裏·半表裏·水·風·寒·熱·濕·燥·瀉 등의 19종의 치법 및 消法과 吐法을 합쳐 24종의 治法과 主方을 설정하고 분류하여

방제를 계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방제학 체계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현곡선생만의 분류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밖에도 違和의 主方, 妊娠의 主方, 五臟補瀉方과 四象體質의 主方을 더하면 치료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한의사라면 어느 학과에 국한하여 편중된 방제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폭넓게 방제를 응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東醫臨床方劑學』은 중국과는 구분되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방제학 체계를 세워 한의과대학의 방제학 공통교재를 편찬할 때 깊이 참고해야 할 방제학서라고 보여진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3AA107).

참 고 문 헌

1. Yun GY. Clinical Formula Science of Korean Medicine. Seoul:Myeongbo Press. 1985:17-709.
2. Yun GY. Formula Science of Korean Medicine. 3rd ed. Seoul:Gomun Press. 1980:1-337.
3. Hwang DY.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 Seoul:Namsandang. 1978:119-363.
4. Rho GL. New Editing for Protecting Children Volume 1. 1905.
5. Kim DH, Shin SS. Analysis of Introduction to Science of Prescriptions in Teaching Materials Related with Science of Prescriptions at College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Colleg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2003;11:1-18.
6. Li F. Formula Science (Volume 1:2). 2nd ed. Beijing: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11:119-1869.

7. Yun GY. Methodology of Korean Medicine. Seoul:Seongbo publishing. 1983:234-48.
8. Wang Y. Medical Formulas Collected and Analyzed. 1st ed. Beijing: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7:1-301.
9. Wu K. Investigations of Medical Formulas. 1st ed. Beijing: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8:1-321.
10. Wu YL. Practical Established Formulas. 1st ed. Beijing: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7:1-541.
11. Xu JQ, Wang MZ. Formula Science. 1st ed. Shanghai:Shanghai scientific & Technical Publishers. 2000:16-226.
12. Duan FJ. Formula Science. 1st ed. Beijing: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58-640.
13. Professors of Department of Formula Science in College of Korean Medicine. Formula Science. rev. ed. Seoul:Yeongnim publishing. 1999:63-612.
14. He L. Comprehensive Outline of the Practical Formulas. 1st ed. Xian:Shanxi scientific & Technical Publishers. 1991:31-534.
15. Gao XM. Chinese Materia Medica(Volume 1-2). 1st ed. Beijing: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0:177-2000.
16. Ru JS. Shijinmo Herb Pairs. 3rd ed. Beijing:People's Military Medical Press. 2005: 1-406.
17. Liu JH. Herb Pairs. 1st ed. Beijing: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9:13-684.